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회 협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총현교회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수치’에 담겨 있는 ‘구원의 비밀’을 마음에 각인하라!
이번 주 금요일(27일) 저녁 7시, 제3차 청지기 훈련

구원에 이르는 수치 (시 83:16)

수치! 사람들은 수치당하는 것을 매우 자존심 상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수치, 아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까지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눅 18:11,12).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단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마 23:27)이 되어 매우 굳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시 83:16). 우리는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수치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 처럼 우리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리사는 수치를 매순간 느끼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 수치는 자신의 공로, 의를 격파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한 죄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수치에 담겨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제3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열립니다. 매우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람이 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영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꼭 이 은총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3차 청지기 훈련 죄책 배치 및 세무 인내는 본지 6만 참조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크리스마스에 오신 어린 양

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 책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인 아담과 이와의 창조로 시작하여 이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이 죄로 물들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무죄하고 의인 아닌 죄가 저들에게 필요함을 아셨다(창 3:20).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회생의 동물이 필요했고 이것이 곧 영원한 회생 곧 예수님이 필요함을 비단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간이 오기까지 여러 모양의 제사를 요구하셨고 구약의 제위기는 이 규례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곧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셨다(요 1:29).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린 양의 삶과 죽음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셨다(사 53:7). 신약에서도 메드와 사도 요한에 의해 양으로 묘사되고 있다(벧전 1:18-20; 계 5:6). 회생 제물이 된 양의 상징과 또 양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천국 보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예수께서는 크리스마스 날에 이 땅에 회생의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크리스마스를 맞이 할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고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고백하기를 바란다. 의심 많은 현대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지 물어본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곧 크리스마스이다. 교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오랫동안 기념한 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주야 4대기에 이르러서이다. 로마 제국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전통이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미사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즉, “Christ’s Mass”로 불리던 것이 짧게 “Christmas”로 불렸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2월 25일은 일 년 중 해가 가장 짧게 떠 있는 날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 년 중 이 시기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였다. 우상을 기념하는 것을 떠나 참 신이신 삼위 일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공존하여 왔다. 파멸과 이화가 완전한 것으로부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 죄가 생겼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속, 곧 피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히 9:22).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약속이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후 400년

제39대 장로 · 19대 안수집사 · 47대 권사 임직예배
이번 주 수요일(25일), 수요일 2부 예배 시

지난 3월 26일(주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되신 장로 6분, 안수집사 48분, 권사 76분의 임직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피택 결정 이후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였었습니다. 자신을 외적으로 치장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빌 3:8)로 여겨 버렸으며 십자가만을 자랑(갈 6:14)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임직 받는 분들이 십자가에서 끊었던 무릎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계속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더욱 교묘하게 이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26:11). 특히 성도님들은 죄인들을 일꾼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임직예배에 모 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복음의 일꾼 명단 확정

지난 정기당회(18일)에서 2007년 일꾼들을 새롭게 확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고전 2:2). 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편성된 부설과 임명된 일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철저한 일을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히 3:6).

※2007년 일꾼 명단은 본지 5면 참조

***오늘 찬양예배 시 제5차 학습 ·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릴움)

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받지 못하였다. 기독교에서도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4주 동안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가림절(Advent)은 라틴어로 “기다림”이라는 데서 시작되었다. 11월 30일 부터 시작되며 구약의 축제의 날들을 반영하고 있다. 항상 성 금요일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10세기 경에 기독교 예수님의 가림절을 일 년의 시작으로 정하였다. 즉, 일듬은 예수님의 탄생 후 열두째 날을 기념하는 예수의 공현(Epiphanay), 고난 주간, 부활 주일 그리고 성령강림 주일을 포함하고 있다. 가림절은 예수께서 배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하다. 저들이 육체적으로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간에 그를 믿는 자들을 그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데려갈 것이다(고전 15:51-53; 살전 4:16,17).

12월 26일부터 12일째 되는 1월 6일까지 즉,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기간을 가리켜 예수의 공현(Epiphanay)이라 부른다. 공현(公顯)은 “나타남”을 의미하는 회당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예수께서 동방박사를 대표로 하여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념한다. 우리 또한 이방인 이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구원의 약속에서 제의된 자들이었다(창 22:3, 17-19).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영원히 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전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은 향과 몰약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유행은 시막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나온 송진으로 상당히 귀한 물질이다. 이는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다. 몰약은 향기는 좋은데 쓴 것으로 고생을 없애기 위한 자연산 통째로서 속은 몸을 장사지낼 때 사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재물과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동과 회생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몸을 산 재물로 그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린다. 이 말씀은 곧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라 가기를 원함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의 공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을 넘어 그의 은혜로 피를 흘려 배를어 주심을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다. 어린 양이 이방인들을 초대하며, 그를 경배하며, 그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금년 예수님의 초림 가림절 동안에 우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기까지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살피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STANDING BY THE CROSS

... *But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 were Hi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John 19:25)*

All kinds of people came to Calvary Mountain to see the death of Jesus Christ. Each one had their own purpose for standing by the cross. Like today, most of them were there for the wrong reason or with the wrong attitude. Their mistakes had dreadful consequences.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a serious matter, something no one should take lightly and everyone should suffer reverently.

Among the many people atop Calvary were false prophets. These individuals always talked about the goodness and greatness of God, read the Scriptures, and attended temple faithfully. They were highly religious and highly respected. When Jesus was brought out by Pilate, wearing the crown of thorns and the purple robe, these people cried out, "Crucify, crucify!" Pilate said to them, "Take Him yourselves and crucify Him, for I find no guilt in Him." The Jews answered him, "We have a law, and by that law He ought to die because He made Himself out to be the Son of God" (Jn. 19:6&7). Here we see their true love of evil, rather than of good. They were the ones who persuaded "the crowds to ask for Barabbas and to put Jesus to death" (Mt. 27:20; Mk. 15:11). On the outside, these people appeared to be good, but on the inside, they were very, very bad. Standing before the cross, they were the ones who plotted to kill the Messiah. Are you one of them? Are you a person who always talks good about Jesus, but actually does harm to Him through your bad behavior?

Soldiers stood by the cross in active duty. "Then the soldiers of the governor took Jesus into the Praetorium and gathered the whole Roman cohort around Him.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And after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they knelt down before Him and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They spat on Him, and took the reed and began to beat Him on the head. After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the scarlet robe off Him and put His own garments back on Him, and led Him away to crucify Him" (Mt. 27:27-31). Every human being is either a soldier against or a friend to Jesus. Look at yourself at the cross. Are you mocking Him? Is your lifestyle the same as spitting on Him or beating Him?

Pontius Pilate, a government leader, stood before the cross with excuses. He knew Jesus was not guilty, "For he knew that because of envy they had handed Him over" (Mt. 27:18). He asked the crowd what evil Jesus had done, but the crowd kept shouting louder and louder to crucify Him (Mt. 27:23). He was afraid of the crowd. It was more important for him to please the crowd than to do what was right, "Wishing to satisfy the crowd, Pilate released Barabbas for them, and after having Jesus scourged, he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Mk. 15:15). Can you believe it? He knew what was right, but he chose to do what was wrong. His pride got in the way! To clear his conscience,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in front of the crowd, saying,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see to that yourselves'" (Mt. 27:24). No amount of water could make this man innocent. Are you standing by the cross like Pilate? Do you know what is the good thing to do, but do not do it because of pride? Do you make excuses for your sin?

The multitudes of people standing by the cross were hypocrites. They were exactly as Jesus taught them not to be, "When you pray, you are not to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stand and pray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corners so that they may be seen by men. Truly I say to you, they have their reward in full" (Mt. 6:5). Jesus specifically instructed them, "Whenever you fast, do not put on a gloomy face as the hypocrites do, for they neglect their appearance so that they will be noticed by men when they are fasting. Truly I say to you, they have their reward in full" (Mt.

6:16). These people had followed Jesus for three years. They witnessed His miracles and heard His preaching. They used Him to heal their sick. They were serious about truth, and found it in Him, but preferred to cry and lament rather than fight for Him (Lk. 23:27). As you stand by the cross, do you fight for Jesus or are the opinions of other people concerning you more important?

Not everyone standing by the cross was bad, there were a few real disciples, "But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 were Hi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Jn. 19:25). Joseph of Arimathea and Nicodemus were also disciples who bravely prepared His funeral (Jn. 19:38&39). When the rooster finally crowed a second time, Peter wept (Mk. 14:72) and one of the two thieves hanging next to Jesus turned out to be a real disciple. Do you forsake all to stand by the cross of Jesus or are you too busy attending to some other business? Hebrews 13:12&13 say, "Therefore Jesus also, that He might sanctify the people through His own blood, suffered outside the gate. So, let us go out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His reproach."

What is your purpose for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 Is it to mock Him, or perhaps just analyze the situation to see what is going on? Do you want to hurt Him or just stand there crying all the time? What is it you really hope to get? If your real answer is forgiveness, then like the one thief who accepted Jesus, you will receive eternal life in heaven. Jesus prayed on the cross, "Father, forgive them" (Lk. 23:34), so do you really want to repent or just stand by looking at Him? 1 Peter 2:24 says, "an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for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Likewise, 1 John 1:7 says,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Dear Christian believers, please go to Calvary to find Jesus, the Son of God. He is our only hope,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He is our only way to heaven.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You have to stand by the cross in order to meet Jesus Christ, not by your own standards of happiness. He wants to forgive your sin.

Without fixing your sin problem, do not talk about Jesus' love. Until you see yourself as a sinner, do not talk about righteousness.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are false prophets, full of religious words. They talk about Jesus' love and salvation, but live the devil's life. Most of today's Christians are like the multitude that listen but do not obey; who follow when things are good but not when things are bad, and who talk the big talk but do not walk the narrow walk. There are too many bad soldiers in today's churches, and not enough friends. Too many leaders stand for the majority in sin, and not the minority in righteousness.

Today is Reformation Sunday, and we need to reform. We need to earnestly come to the cross and look at our attitude to see where we are. We need to get serious about sin,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right relationships. One thief accepted Jesus and went to heaven; the other thief denied Jesus and went to hell. I want you to get to heaven, to get the grace and mercy of God, which means you have to get sincerely involved with His cross. If you are going to stand by the cross of Jesus, then stand in forgiveness of sin, humbly and faithfully. Amen. 

다음 주일 설교

십자가 곁에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요한복음 19:25)



김성관 목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기 위해 갈보리 산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이유와 그릇된 태도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는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의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갈보리 산에 있었던 많은 무리 중에는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말했고 성경을 읽었으며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 시관을 쓰고 자책 옷을 입은 채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이다"(요 19:6,7).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참으로 사랑한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놓아라"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 27:20; 막 15:11). 겉으로 이들은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서서 그들의 마음을 죽이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무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에 대해 선하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행실로 주님께 해를 끼치는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

군병들은 십자가 곁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얹어 그 머리에 꿰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흰 벨고 갈대를 때었으며 그의 머리를 치러다 회롱을 다한 후 흉포를 다한 그와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마 27:27-31).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군병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회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침을 뱉거나 주님을 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것을 알리라"(마 27:18).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더욱 소리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마 27:23). 그는 군졸들을 두려웠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군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주를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니 무리라"(막 15:15).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의 자존심이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해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마 27:24)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리 많은 물로 씻어도 사람의 죄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곁에 갈보리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행하여 할 선한 일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원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되지 말라고 가르치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하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5).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울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하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16).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

라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진지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지만, 주님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율무짓으며 애용하는 것이 그들이 행한 전부였습니다(눅 23:27).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십니까?

참 제자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나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진정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요 19:25).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용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예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요 19:38,39). 마침내 달이 두 번째 올았을 때 베드로는 울었고(막 14:72). 예수님 곁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십니까? 히브리서 13:12,13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직 십자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회롱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괴롭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울면서 서 있기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죄 사함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강도처럼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주님을 쳐다보며 서 있기를 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24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셨으니 너희는 마음을 연것이니." 마침내 그로한지 1,76은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갈보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친히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그분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는 자신의 행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적은 무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죄인으로 깨달아 자기 전까지 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말 뿐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말하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귀로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따르지만 나쁜 일이 있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소리만 크면서 좁은 길은 걷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악한 군병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 십자가의 정병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의로운 소수가 아니라 죄에 속한 다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살피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대해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갔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믿기 원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고 중성스러운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그 분은? (사 32:1-4)

“보라 장차 한 왕이”, 이사이는 은총의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해 전하고 있다. 바로 “그 분”에 관해 선포하고 있다.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요”(사 32:1). 이처럼 성경은 그 분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노력하여 빠르게 살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오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한다. 세상의 문화와 성경을 적당히 섞으려 하지 말고,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서 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자(요 1:14).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딤후 2:5)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누구신지?

구원자이시다

그 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사 32: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 입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히 7:25). 요셉에게 전한 천사의 메시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였다(마 1:21). 또한 예수님께서 세리장 사게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세리의 축복을 구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삶을 격려하였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직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의 온 것은 오늘 열리니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9,10). 이처럼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문화에 섞여 보혈의 은총을 잃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짐을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자(마 11:28). 이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증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만족케 하시는 분

그 분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만족은 육신의 안위를 위한 만족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만족이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라.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이제

벨 왕비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하여 죽으려 하였다(왕상 18,19장).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족케 하였고,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5). 광야에서 시험 당하였던 예수님은 어떠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요일 2:16)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마 4장).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갑급함을 채워시는 그 분만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듣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오직 그 분만이 환난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히 채우신다(시 37:19).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분이시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 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 3:3).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니 그가 너를 그 것으로 모으시리라 내가 그 날에 아래 피하리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시 91:1,4). 오직 그 분만이 원수를 피하는 가장 견고한 대성이시다(시 61:3).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 분”을 전해야 한다. 그 분은 누구신가? 그 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 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해야 한다. 무의식 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우리의 삶, 기도 또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한다. 비록 현재 지고 있는 십자가가 몹시 무거워 버거울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멘”으로 순종하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찬 446장).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년 1부



이태식 장로 (장년 1부강)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고단으로 매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됨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년 1부는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위해서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갈 5:13)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년 1부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년 1부는 40대 성도님들을 위한 부서입니다. 매주일 12시 30분 교육관 507호에서 교회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미 굳어져버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4일에 있었던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서 40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해서 깨달으며 모두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전환점인 40대에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장년 1부는 40대의 성도님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 주님을 모신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 11:28).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장년 1부의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항상 예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미리 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불평 한 마디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총체적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보다 더 기뻐하실 주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한 성도와 할지라도 남보다 주님 앞에 낮아져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며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장년 1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장년 1부가 오직 복음 위해 굳게 서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2007년도 일꾼명단

2007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

당 회
서 기 / 노광현

부서기 / 김단용

예배위원회

예배위원장 / 이 훈 서 기 / 안동현 회 계 / 황의만
지 도 / 정진호 부지도 / 윤인숙, 홍순애, 김경연
예배부 / 원용철(장), 이창호, 신상수, 정장수
성례부 / 이형수(장), 최차용 차 장 / 신희숙, 이미재, 이인숙
안내부 / 안동현(장), 한승규, 최옥림, 임복섭
헌관부 / 황의만(장), 김영달, 박철규

찬양위원회

찬양위원장 / 이종석 지 도 / 장 훈
서 기 / 이재민 회 계 / 임창식

서기	대장	지휘	반주	부대장	출무
가브리엘	임복섭	김원식	구지희	양은식 / 황진선	김종호
임마누엘	임창식	서은성	오수미	이규호 / 이현진	변원주
오제스트		악(이제스)	린(순애)		유원주
엘리아	박성태	김광구	한종숙	이세영 / 금호선	문경민
오제스트		악(유정)	림(김영아)		최경옥
이엔	박종규	김원식	김종경	김국권 / 김경숙	황정민
오제스트		악(정현)	림(김종국)		이진
베엘	양기수	김광구	최성영	지우성 / 이은기	이호준
오제스트		악(이현)	림(현숙)		이원식
호산나	이희자	이승순	김신영	박진기	송영복
실로암	이계민	서은성	채은실	권영우 / 이숙희	정종욱
예벰	김무현	주은진	오민선	최종규 / 김경희	이미애
오제스트		악(우승태)	림(정영진)		
엔도벨	김승국	송재철			안철희
만도린	최근준	이승순	김지은	김영현	박국수

제1교육위원회

제1교육위원장 / 조종환 지 도 / 이재영
서 기 / 이덕용 회 계 / 박상대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장
영아부	이낙옥	김성호 / 이상옥	김성호 / 이상옥
유아부	유상태	이복순	박명호 / 김희선
유년부	김재민	김정민	이상화 / 손유비
유년부	김광국	장명부	지우성 / 남준자
초동부	송두원	유원철	박광식 / 김하영
소년부	장승길	정장수	이정호 / 김민정
중동부	정은배	양대선	이보선 / 유숙희
중동부2	전창수	전성민	박용기 / 김남희
중동부3	장철환	이재영	박석산 / 한 숙
초 중도서실	서영식		김종훈 / 함화자

제2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장 / 정선현 지 도 / 이상수
서 기 / 양기수 회 계 / 이상식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지도	간사	부장
고동부	김구현	이상수	정현희, 양희희	채종복 / 김경희	
대학부	양기수	정진호	유진희	지우성 / 유숙희	
청년부	이상식	김원규	이혜숙	김지훈	김진숙 / 이은기
청년부2	구재환	이용진	한성일	전진국 / 김경숙	

제3교육위원회

제3교육위원장 / 신진길 지 도 / 김익환
서 기 / 이재민 회 계 / 김승곤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지도	부장
장년부	이대식	김익환		장길남
장년부2	박덕양	유진희	한정수	전철
장년부3	노영환	임원덕	김단용	김원태
소망부	김한기	이국근	한영준	윤상철
사랑부	남영하	최성규		조영철
예배부	이남수	박진기	변창태 / 김정관(능)	
타락부	김승곤	강덕필	정원훈	김영은
새가족독실	전태해		김달자	
새가족양육부	김규식	이창수	이복순 A	박성명 / 김은심

전도위원회

전도위원장 / 장철형 지 도 / 이희식
서 기 / 김광국 회 계 / 박상대

전도부서 / 장철형
위 원 / 유진민, 유상태, 서영식

선교위원회

선교위원장 / 차신득 지 도 / 정현민 부지도 / 이재영
서 기 / 임무원 회 계 / 신광철

의선부 지도 / 이경준
의선부 간사 / 박경배, 매지아, 박요원, 필립, 나기태
단기선교부장 / 차신득 의료선교부장 / 최민석

의선부장 / 오순도
위 원 / 김은호, 이훈, 이종석, 진홍용, 정재두, 김창국, 김신국, 장승규, 김규식, 이상식, 김태식

선교훈련원부장 / 차신득
위 원 / 김은호, 이훈, 이종석, 진홍용, 정재두, 김창국, 김신국, 장승규, 김규식, 이상식, 김태식

법인운영위원회의
법인운영위원장 / 당희정
위 원 / 이훈, 진홍용, 김원근, 장승규, 신선길, 김규식

부위원장 / 노광현
위 원 / 이훈, 진홍용, 김원근, 장승규, 신선길, 김규식

봉사위원회

봉사위원장 / 권명옥
지 도 / 류병희 부지도 / 이종대
서 기 / 김신국 회 계 / 안석현
구제부장 / 고재숙 제나눔봉사대장 / 장승규
차량안내부장 / 배순식 차량 / 박철규
자원봉사부장 / 권명옥 차량 / 김연태, 이경원
위 원 / 이정우, 신상수, 한철규, 윤석민, 구제환

총련장회의

회 장 / 당희정 지 도 / 정진호
부회장 / 김광남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김구형, 박종국, 김규식, 이상식, 양기수

재직회의

회 장 / 당희정
서 기 / 김진숙 부서기 / 이부성, 장철환, 이세영

집사회의

회 장 / 김연태 부회장 / 박광식 지 도 / 정현민

권사회의

회 장 / 이경원 지 도 / 류병희
서 기 / 김영숙 부서기 / 김애자
회 계 / 조용기 부회계 / 전성신

1회회장 / 정호진 (1, 6, 10, 13, 14)
2회회장 / 유신덕 (2, 7, 11, 15)
3회회장 / 이영숙 (3, 5, 8, 9, 12)
4회회장 / 김정금 (4, 16, 17, 18)

노회총대

노회총대 / 노광현, 이훈, 진홍용

총련회의 위주지대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진홍용
감 사 / 원용철

재단법인 총련동산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훈, 김광남, 진홍용, 김영수, 최지윤, 정정길
신상수
감 사 / 권종철, 박종국

사회복지법인 총련복지재단

이사장 / 노광현
상임이사 / 진홍용
이 사 / 김광남, 이훈, 김광남, 진홍용, 김단용, 조종환, 안석현
신선길
감 사 / 노영환, 정성현

의료선립실 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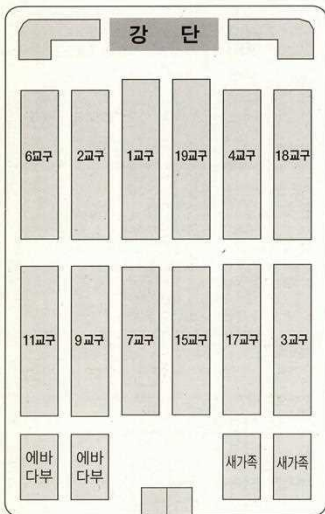
위원장 / 노광현
위 원 / 이훈, 이종석, 진홍용, 권종철, 김단용, 권명옥, 조종환
정선민, 안석현, 신선길
실행위원 / 지우성, 이세영, 최민석

구분	목사	전도사	지역장	전도회	신약부	서기	간사(남)					
				바울 베드로 요한 한나 에스도 루디아 마리아	장형	박기영						
1	김신국	류병희	김종숙	1.혜성2.이보선3.최재환4.유신덕5.정현민6.구제환7.정정길8.유정9.김광남10.송승길11.이진희	장기철	이영환	최은민	이은기	김원규	김정민	정현민	이은기
2	김광남	김원규	김정민	1.정종욱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김정민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	이정현	장 훈	이복순	1.김광국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4	신광철	이국근	이복순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5	양기수	이정현	이복순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6	고재숙	이희식	김정민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7	송두원	임원덕	최성규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8	김정민	정정길	최성규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9	정정길	윤우일	김정민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0	박덕양	안석현	윤우일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1	서영식	안석현	김정민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2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3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4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5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6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7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8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9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0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1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2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3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4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5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6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7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8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29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0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1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2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3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4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5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6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7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8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39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40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41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42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43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44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45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1.정정길2.정정길3.정정길4.정정길5.정정길6.정정길7.정정길8.정정길9.정정길10.정정길11.정정길	김정민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정정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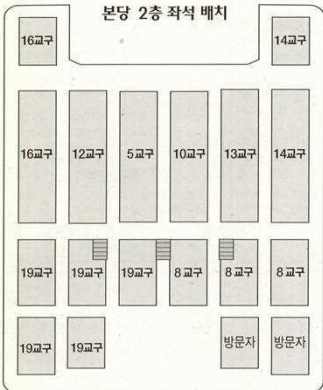
제3차 청지기 훈련

청지기 훈련 좌석 안내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층 좌석 배치



-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후, 나사렛후, 본당 112호 개방)
- 탁아부 : 탁아부실(탁아부), 어린이집(부모와 3세 이하), 영아부실(부모와 5세 이하), 베다니후(부모와 7세 이하)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 주차 차량은 먼저 출차(出車)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 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안내 : 장로·안수집사(제2교육관 지하 3·4층), 새가족(예치과 앞), 노약자·장애우·어린이 동반인 부모(본당 앞)

제3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초등부 시절부터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였고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찬양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래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았지만 점차 부족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으며 이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절실히 못했다. 그래서 한때, 청지기 훈련은 나에게서 그저 어려운 대상이었다. 기대보다는 무덤덤함으로 또는 귀찮음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매번 청지기 훈련에 참여하면서 말씀에 심히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지난 6월에 있었던 제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밖에서 주변인으로 맴도는 나를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하였다. '베드로의 회개'란 말씀을 듣고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지금의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은총의 말씀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참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믿을 없이 험살만을 바라보며 들어가기를 힘들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불순종하는 모습이 생각났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같았다. 그 동안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매순간 십자가만을 바라고 있다. 이제 2006년 마지막 청지기 훈련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번 제3차 청지기 훈련 역시 나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대가 된다. 이번 주제는 '구원이 이르러 주께 성구는 "여호와여 수치를 저희 얼굴을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시 83:16)이다. 청지기 훈련 주제와 주제 성구를 마음에 새기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청지기 훈련에 임해야겠다. 그리고 훈련의 성도들이 모두 나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윤선미(집사, 14교구)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만하였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날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하였습니. 직분을 받고도 '이 정도면 나의 신앙 생활은 괜찮아'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고 계속되면서 나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갔고, 도저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망가져 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광범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나에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교만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무더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매주일과 주간의 훈련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딱딱해진 저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게 하였습니다. 특히 청지기 훈련 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항상 결실을 가져던 저를 붙잡아 주었고, 제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7일 금요일에 이어 있을 청지기 훈련(구원이 이르러는 수지, 시 83:16)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저를 변화시켜 다시 한 번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고쳐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도 값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 죄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명진(권사, 13교구)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출국부터 입국까지 간절하시고 주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귀중한 선교였습니다. 경전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앞세우고 사역에 임할 때마다 매일 매일 예비해 두신 영혼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전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예비된 영혼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치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마무리 영접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첫째 날 노방 전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병원전도 사역까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여지없는 죄인들을 다시 한 번 '죄인 중에 피수'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케 하시며 온전하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날 병원 사역에서 육신의 병 때문에 울며 호소하신 할머니의 영혼 구원 사역은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종양을 보이며 호소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전하자 곧바로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며 평온을 되찾을 때 저희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예비하신 영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삼삼이 찾아다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필사로 다 옮길 수 있었습니까? 무궁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만난 감사를 드러낼 그 곳에서 만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제 쉬지 않고 기도 드릴 일만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김영재(전사, 4교구)

오카리나에 담은 예수님의 사랑

-종중 1부 오카리나반-



▷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손짓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통하여서 찬양을 하듯, 저희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두를 쉽게 접해 보지

못하는 악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연습과 기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시간에 헌금송을 합니다. 연주 방법은 리코더와 비슷하며 소리는 리코더보다 더 맑고 좋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오카리나를 통해 찬양하는 것은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악기가 배움의 기회가 흔치 않은데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평은진 교사)

▷ 오카리나 같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를 배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오카리나로 찬송을 연주하여 헌금송을 부를 때, 처음엔 많이 떨렸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젠 많이 떨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 주 동안 찬송을 연주하면서 찬송을 완전히 익히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김진아)

▷ 오카리나는 아름다운 소리는 물론 적당한 크기로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연주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송을 쉬지 않았습시다. (박지윤)

▷ 내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에서 친한 친구가 오카리나를 연주했을 때입니다. 그 때 나도 꼭 한 번 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남보경)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에 낫고 낫게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은 역시 어리석고 악하고 죄 많은 여인인 저를 만세 전에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저와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다리를 건너면 또 커다란 강이 눈앞에 나타나 때 이해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담대하라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역시 크거나 작거나 모든 시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은 이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부르짖고 의지하도록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또 고난 중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완악하고 강박하고 넘쳐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였고, 연약한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오히려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슬픔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만을 저는 의지하려 합니다. 이제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그저 주님만 믿고 따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신실하신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 23:1).



고희관(교사, 영아부)

'아!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저는 5학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부 5명을 전도했어요. 어렸을 때는 저 대신 주로 엄마가 저의 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의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같이 가자!"라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좀 더 뜻 깊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제일 처음 성경학교에 다녀온 '김기현'이라는 친구예요. 하지만, 순탄치는 않았어요!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했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4주를 채워서 겨우 등반을 시켰지요. 기현이를 전도한 후에는 신인파 선생님께서 저에게 매주 전화를 하셔서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기현이가 안 나오는데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께서 설교를 듣고 오셨다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라는 설교였고, 그 말씀을 듣고, 전 '아!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때부터 가끔 있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친구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했어요. 그 뒤 기현이가 지난 8월에야 회개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는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두 번 정도 나오다 안 나오긴 하였지만요. 전도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제 친구들을 꼭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임희진(소년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58	주현실	7	청년부	2367	김영은	19	청년부	2376	라지아미라	19	외선부
2359	정규명	8	소년부	2368	한현주	14	청년부	2377	유선영	19	외선부
2360	이보라	6	종중3부	2369	차희주	19	외선부	2378	나민하	19	외선부
2361	유성택	1	교역자	2370	오유미	18	청년3부	2379	사무도라	19	외선부
2362	김민실	1	청년부	2371	신아라	19	외선부	2380	남민지	19	외선부
2363	김희정	19	청년부	2372	김미라	19	외선부	2381	이혜수	19	외선부
2364	이진영	19	청년부	2373	다슬기	19	외선부	2382	강슬옹	19	청년2부
2365	변성원	19	청년부	2374	예지	19	외선부	2383	전은주	19	청년1부
2366	김은지	19	대학부	2375	예지	19	외선부				

*충청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별 세

1. 우월선 성도(강인자 집사·장정자 집사의 모친, 17교구 수내구역, 14교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2. 김동배 성도(배귀순 은퇴관사의 남편, 강성관 집사의 부친, 최명경 집사의 사부, 14교구 목2구역, 18교구) / 14일 별세, 16일 장례
3. 김교이 성도(이윤복 집사의 모친, 박정진 집사의 시모, 9교구 용두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4. 임봉남 은퇴장로(김순복 은퇴관사의 남편, 임우도 집사의 부친, 석태임 집사의 사부, 18교구 안남1구역, 16교구) / 17일 별세, 20일 장례

결 온

1. 김길남 군(김연단 권사의 아들, 16교구)과 한세희 양(한태승 장로, 경제심 권사

- 의 딸, 서울영원교회, 19교구) / 26일(목) 1200 갈릴릴
2. 박선순 권(송준임 집사의 아들, 7교구)과 위승기 양(위권현 씨, 김정숙 씨의 딸) / 26일(목) 1900 리더스클럽 역삼점
 3. 안형상 권(안영호 씨, 조현숙 씨의 아들)과 문혜은 양(문수택 성도, 신복선 집사의 딸, 7교구) / 27일(금) 1300 서울타원로빌 3층 연식
 4. 노성현 권(노순만 집사, 김애순 집사의 아들, 13교구)과 들희 양(장승현 안수집사, 현강남 권사의 딸, 16교구) / 28일(토) 1100 새천년테라스 4층 예석홀, 0215-6-8000
 5. 양선순 권(양기영 씨, 최경자 씨의 아들)과 김연희 양(김명길 집사, 현영남 집사의 딸, 7교구) / 28일(토) 1430 마상타원로빌 3층 연식
 6. 손석현 권(손동기 집사, 장진복 집사의 아들, 16교구)과 이현숙 양(이흥곤 씨, 김동자 씨의 딸) / 28일(토) 1440 수원 대영의 전당 2층 다솜홀

10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섭함을 주시오.
2. 제3차 정기가 훈련(00월 27일 금요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오.
3.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시오.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회교구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오.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쁜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오.
6. 모든 세가족들이 복음의 실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안에서 살게 하시오.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시오.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를 십자가의 은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시오.

교회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영양사(남·여)
전공자 우대
2. 자 격 세례교인 (81년 이후 출생자)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주민등록등본
4.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203

충현기도원 촉탁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충현기도원 주방 (여)
2. 자 격 세례교인 (만 60세 이하)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주민등록등본
당회초청서(태고인)
4.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031-766-5425

소망부 충현전 전도집회

일 시: 10월 29일(다음 주일) 12:15~13:15
장 소: 갈릴릴
대 상: 70세 이상 모든 성도

휴강 안내

이번 주 수요일(25일), 수요성경공부는 휴강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28 (토)	29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영은	나광영/김성호	정진호/정원근	고광환/홍원식	장 훈/황기국	임현덕/홍순애	최종철/김연식

예배담당 안내 (10/25-10/29)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0/25	수요 I	불 속의 신앙인물 (단 3:24-28) 김성관 목사	윤수일	이정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호산나 찬양대)
10/25	일미예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마 16:13-20) 배정영 목사 (동향양호회 중장노회장)	김성관	정원근	십자가 군병 (실로암 찬양대)
10/27	청기회포럼	구원에 이르는 수직 (시 83:16) 김성관 목사	장현민	신선길	연합찬양대
10/29	주일 I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정종신 목사	김철규	함철주	《매제 전 찬양》
10/29	주일 II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김준희 목사	최성규	신상수	내 주님 임으신 그 곳은 외 / 스코틀랜드 교회 (임바부빌 한때 홀로이스트)
10/29	주일 III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김성관 목사	이국진	신정환	아침 해가 들을 때 외 / 호 운송호 (임바부빌 홀로이스트)
10/29	주일 IV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임현덕 목사	하종철	최자용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외 / 바이올린 장영희 (전일 연주자)
10/29	주일 V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김성관 목사	윤수일	전종필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외 / 배정영 목사 (한때 한때 홀로이스트)
10/29	주일찬양	개척할 때까지 말하지 않거 (히 9:1-10) 양재용 목사	최종철	김홍기	전도위원의 중창단 / 한때이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일 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화요일 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 아침	저녁 10:30	금요일 저녁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우리말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및 통사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t Lu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신교관 1층
	II 오전 11:00	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1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스 망 부	오후 12:15	강 빌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마루	오전 9:00(마침)	제2교육관 1층
	오후 1:00(마침)	제2교육관 1층
대학 마루	(화) 오전 8:30-9:40 (토) 저녁 6:30-7: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다니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청년사관학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벨 홀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김민호	노광영	이병학	이 훈
남선우	김종구	최부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식	임무진	김종용	전종필
이정우	김기환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원운철	이형수	안동원	황민기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환	이태식	정태두
박용규	권명호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이심호	최희용	노영남	박철구	정경철
신상수	고재승	강철형	김영은	이달용
장철환	김승곤	함철주	유석민	정선현
안석원	김연근	김장경	김종진	임성익
김은철	전진태	김신국	전계식	장승규
전은배	석영익	구재환	송두성	최자용
신선길	유상대	박상대	김규식	신정환

■ 부목사

이종대	정원근	박인기	류병희	이국진
안영달	나광영	정원호	고광환	최종철
김기환	장 훈	정종신	이희식	이성진
최종철	안지현	정종신	양재용	이성진
최성규	이영희	이창수	김준희	김연식
윤수일	황정진	유재진	김영수	전정현
김철규	이윤진	양태선	유성택	유원철
윤연우	한대우	홍대우	신대우	조동우
■ 어전도사	윤연우	한대우	홍대우	신대우
	김정환	정경철	이성진	이국진
김정환	정경철	이성진	이국진	이성진
전은배	김정환	김정환	이복순A	류진호
한성일	이영희	장영미	이복순B	홍대우
강종호	정경철	이복순	이복순	이복순
■ 전담장로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 전담지회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 전담집회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 전담주지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